

간호의 기본원칙 (3)

Miss Virginia Henderson

<우석간호학교 교학간> 이 송 희 역

IV. 基本看護의 要素

1. 환자가 호흡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들의 생명이 신체내에서의 가스교환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호흡의 성격에 따라서 건강의 질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원에 의한 정확한 호흡의 관찰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때에 따라서 흉곽의 확장을 충분히 조장하며 모든 呼吸筋이 자유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立位, 坐位 또 臥位 등의 체위에 대해서 환자에게 시범하여 보이고 그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위를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할 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위해 적당한 침대나 의자를 선택하여 주어야 하며 베개나 깃 또는 모포를 말은 것 등을 사용하여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체위로 유지하여 주는 일 등도, 간호원의 책임이다. 불충분한 가스교환은 감정적인 스트레스(stress)가 있을 때, 또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것이며 반드시 체위가 나쁘기 때문인 것 만은 아니다.

간호원들은 환자의 氣道에 호흡을 방해할 만한 어떤 징후가 있는지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人工氣道의 삽입, 吸引器나 특수체위를 통한 분비물 제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호흡의 장애 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상태에 빠지기 쉬운 환자는 그 원인과 그러한 고통을 제거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예방의 수단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간호원은 각개환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醫師와 같이 세워서 그 책임을 의사와 같이 분담하되 의사가 그 교육을 어느 정도 분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간호원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때로는 극히 적은 일부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의료요원, 환자, 그리고 환자와 접촉하는 방문객들은 酸素나 기타의 가스의 공급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가스를 사용할 때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가스의 공급을 감독하는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그 전문가는 간호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은 주야의 구별없이 필요한 일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간호원은 누구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구의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우기 환자가 흡입하고 있는 가스의 혼합물의 조성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시행중인 치료의 효과를 시험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다.

환자가 끊임없이 전문가에 의하여 관찰되고 있으면 별 문제이지만 자신에게 처방된 특수한 방법을 환자 자신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퇴원하여도 예를 들면 산소마스

크의 사용과 같은 치료법을 당분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원은 보통 이와 같은 치료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환자에게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모든 간호원들은 인공호흡의 방법과 呼吸器 조작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기계의 조작을 가르칠 때에는 呼吸器의 구조 및 조작의 원칙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 呼吸器 내에서 환자가 자기자신의 몸을 조정하는 것을 돕는 일은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간호원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은 실내공기의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전과 같이 중요하다고는 믿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한편 安樂을 위한 공기조절장치 (air-conditioning)는 날로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 allergy성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 간호원으로서 환자 주위의 온도, 습도, 또 공기중의 인체에 자극이 되는 물질의 유무, 불유쾌한 냄새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기조절장치의 설비가 없으면 대개의 경우 자연환기와 청소등에 의하여 위생적이고 기분좋은 환경적 공기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환자가 음식을 잘 섭취 하도록 돕는 일

간호교육의 내용 중 영양학과 같이 더 중요한 과목도 없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식사의 처방을 내지만 학교나 공장, 또 가정에 있어서와 같이 의사와 전연, 혹은 약간의 접촉밖에 할 수 없는 곳에서는 거기서 활동하는 간호원들이 학생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양상의 지도를 하게 된다. 아니 醫師나 영양사까지 있는 병원에서도 24시간을 통하여 환자와 접촉하고 환자가 음식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원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음식물의 기호는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환자가 적당치 않은 식사섭취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관찰, 보고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회를 가지는 사람도 간호원인 것이

다.

간호원은 身長, 體重의 표준에 대하여 또 필요영양소량, 식품의 선택과 조리 등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언은 어머니들에게는 특히 필요한 것이며, 보건의간호원의 많은 활동중에서 아이들의 식사문제를 취급할 지도가 제일 고맙게 받아 들여질 것이다.

보건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가족들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배경을 고려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호원들은 食習慣, 嗜好, 禁忌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호원들은 또한 식사에 대한 심리학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직감적 혹은 학습을 통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음식이 미치는 발육상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의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으로 되어 있던 식사상의 요구를 일조일석에 병원측이 이해하고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경우에 그 환자의 식사를 직접 가져오게 한다든지 또는 그 가족에게 조리를 맡기든지 하고 있다.

정맥내 영양주사 및 經營營養법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 온 것이지만 두가지 경우 모두 어느 정도의 위험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다. 본래 식사는 위험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도리어 한 즐거움이어야 할 것이다. 유능한 간호원들은 환자를 위하여 잘 준비된 식사를 제공하여 비경구적 영양섭취를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醫師의 식사에 관한 지시를 자격을 갖춘 식사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간호원의 책임이다. 만일 환자의 식사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간호원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사가 필요한가를 설명하는지, 음식의 준비를 돕든지 또는 실제로 조리하든지 할 책임이 있다.

간호원은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 같이 지나게 되므로 어떠한 음식물을

환자가 좋아하는지 알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은 환자의 식사생활 중에서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충분히 이용하고 나쁜 습관은 없이 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영양사가 환자의 침상곁에 까지 와서 그날의 여러가지 메뉴중에서 환자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간호원의 책임이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분담된다.

환자가 만일 그가 건강할 때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거나 또 식사에 임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목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어 있거나 감정적 스트레스에 걸려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환자의 기호에 맞추어 美的으로 조리되어 있으면 위의 여러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모든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보다는 환자는 일층 더 식사를 잘 섭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간호의 한 부분인 것이다.

질환환자나 신체장애자들은 때때로 자기 혼자서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간호원이 적절히 먹여 주든지 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자격있는 자원봉사인들과 상의하여 그들이 먹여 주도록 한다.

그렇지만 환자들이나 신체장애자들을 먹여 주든지 또는 그들이 받아 먹든지 하는 것은 양자의 경우 모두 심리적으로 대단히 어렵나는 것도 유의 하여야 한다. 또 누구나 다 환자의 식사를 반드시 즐겁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면, 또 자기에게 식사를 먹여주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환자는 먹여주는 식사를 속히 끝내기 위하여 통으로 삼키든지, 더 필요하고 더 먹고 싶은데도 먹는것을 중지해 버리든지 하기 쉽다. 먹는 사람이나 먹여주는 사람, 양쪽에서 기본종계 식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먹여주는 측의 사람은 가급적이면 앉아서 식상은 양측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한가지 식사를 먹여 줄 때에 기억하여 둘 것은 환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도록 격려하고 가급적 속히 사탕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환자를 이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우기 환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식사를 먹여준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대해서 영타하고도 거짓이 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환자의 재활요법의 과정에서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 식사를 먹여주도록 하면 더욱 치료의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早期步行 및 “침상안정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는 병원의 환자를 위한 식사배설의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다. 식당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게 된 환자 또는 목발을 사용하든지 바퀴의자에 앉든지 또는 운반차에 타고서라도 식당까지 갈 수 있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많은 환자들에게 병원의 簡易食堂을 이용하도록 격려하므로써 다소라도 그들이 “정상적 생활의 흐름”에 있다고 느끼며 용기를 갖게 되고, 또 많은 식사의 종류중에서 자기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편리하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자유가 감금되어 있는것과 같은 기분이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것과 같은 느낌을 완화하여 줄것이다. 그밖에 거기에는 변화가 있고 친구를 발견할 기회도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혹은 절대안정이라는 지시가 없으면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가 식사를 하고 있든간에 간호원은 환자의 식욕과 섭취량이 충분한가에 대하여 항상 바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비경구적 영양공급을 시작하거나 혹은 그 공급을 중지하기 위하여 식사의 변경을 하고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때에는 거의 전적으로 간호원의 관찰과 보고에 의존하여 처방을 내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아무때도 비경구적 영양공급을 필요로 하므로 간호원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입이나 코를 통하여 영양관을 튼

내에 삽입하는 기술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간호원들은 모든 연령에 적합한 완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경관공급을 위하여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을 준비하는지 익숙하거나 또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정맥내 영양주사는 간호원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널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극히 당연하게 간호원이 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모든 간호원들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환자들까지도 정맥내 주사처치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주입액이 전부 들어가 버리기 전이나 또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주입관을 어떻게 막아서 중지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 한 때에는 기본간호에 直腸영양 공급방법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大腸의 영양물 흡수능력, 또는 실제의 흡수량이 의문이 되어 온 이래 간호원들에게 이 처치가 요구되는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간호원들은 직장영양공급의 원리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만일 醫師가 직장영양공급을 처방하는 경우 留置관장의 방법을 적당히 적용하여 지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은 배가 고플 때에 먹는다는 기본적인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욕구불만을 가질 수 있다. 병원규칙은 대체로 아침이 8시, 저녁이 5시에 운반되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보통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 익숙한 사람에게서는 괴로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간호원들은 환자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환자를 불쾌하게 하는 이 인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이 할 수 없을까 생각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없이 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와같은 인습의 악영향이 가급적 적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양사가 있는 경우 간호원은 환자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영양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3. 환자가 배설을 잘하도록 돕는 일

간호원들은 배설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배뇨와 排便의 정상적인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 정상적 發汗, 肺로 부터의 수분배설은 어느 정도인가, 월경에 대해서도 그 정상의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배설물의 경모양을 보고 배설기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배설물의 正常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전사실로 부터의 보고서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환자의 욕구를 더욱 잘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검사실로 부터의 보고서를 보고 환자의 요가 대단히 농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그 환자가 짜르히 수분을 잃을 원인이 특별히 없는 한 수분섭취량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환자의 배설물이 냄새나 외관상 생리적 인 것과 크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의사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한 血便이나 혈액이 섞인 坩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에 직면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간호의 행위 중에는 단건의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부터의 배설물을 각각 채집하는 일과 검사실의 분석에 필요한 표본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런데 배설작용은 식사섭취와 마찬가지로 감정과 憵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스트레스에 걸려있으면 그것은 頻尿, 설사, 혹은 변비를 가져오기 쉽다. 의료에 중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禁忌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부적으로 배설기가 생식기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배설을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排尿, 排便, 月經 등은 예의를 갖춘 화제로는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런것들에 대해서 바르 알지 못하며, 또 그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異狀인 의료관계자와 말하기를 주저하기 쉽다. 그러므로 여자간호원들은 여자 환자들이 부끄러워서 남성인 醫師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자기들에게 말하도록 용기를 주어

야하며 한편 남자간호원들은 남자환자가 女醫師에게 말하기를 거북해 할 때에 자기들에게 말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간호원들의 관찰은 환자간호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간호원들의 보고는 醫師나 기타의 의료관계자들에게 백설이 정상인지 아니면 이상인지를 말하여야 한다.

排便이나 排尿시에는 환자들의 연령이나 관슬에 따르는 필요에 따라서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우거나 육체적으로도 편안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능한 한 정상적인 배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리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바퀴의자에 달린 변기는 만일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보통 사용하는 변기의 代用으로 사용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환자를 바퀴의자에 태워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편이 좋다. 가정에 있어서는 보통의 양손의자를 변기로 고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重症환자에 있어서도 반쯤 옆으로 된 자세로 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변기에 올려 놓는 것이 빈을 보기에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계속적으로 침상에만 누워 있도록 멍멍한 환자는 극히 적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원생활중 화장실에 가도록 허락되어 있는데도 대개의 병원은 화장실의 설비가 충분치 못하다.

간호원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설비를 잘 사용하여 이 요구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 환자의 요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때까지 노력하는 일도 간호원의 직무이다. 이 경우는 허약한 환자나 신체장애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화장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乳兒, 失禁상태에 있는 아이들이나 成人 간호에 있어서는 환자의 피부가 자극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衣類나 침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乳兒의 排便, 排尿습관의 훈련의 모양과, 또 성인의 경우의 배설에 관한 지필요법의 효과는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다.

피부의 간호, 환자를 편안하게 하여주는 일, 냄새의 조정, 惡寒의 예방등은 환자가 發汗이 심할 때에 도와주어야 할 문제들이다. 심한 發汗이나 이상적으로 건조된 피부는 醫師가 무슨 지시를 낼지도 모르지만 보통 간호원이 다루어야 할 상태들이다.

배설들은 특특하고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므로 혼자서 배설도 하지 못하고 배설물도 골치리 할 수 없는 환자는 자신도 부끄럽고 당황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준다. 간호원으로서 는 그와같은 사태를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라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불쾌감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로부터의 배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를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설비나 기구를 환자에게 마련하여 주는 일도 간호원의 일이다.

4 환자가 步行, 坐位, 臥位에 있을 때에 이상적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한 體位에서 다른 體位로 환자가 움직이는 것을 돕는 일

기본간호에 있어서 신체기전의 중요성은 근년 각 방면에서 강조되어오고 있다. 그 방면의 간호원전문가, 整形外科醫, 물리치료사는 질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畸形이나 機能不全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원 자신들도 몸을 움직일 때나 무엇을 쳐들때에 신체를 적당히 사용하므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일반환자가 유능한 간호원의 간호 아래 있으면 걸을 때, 실 때, 앉을 때, 그리고 잘 때의 자세에 대해서 그 환자가 그 간호를 받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일이다.

기본간호를 통하여 어떤 것이 좋은 자세인지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종류의 침상이나 침구, 또는 의자를 환자에게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간호원은 신체의 平衡, 直立, 支持 등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침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體位, 즉 측위, 앙와위, 복위 그리고

좌위에 환자의 신체를 바른 자세로 높히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래 어떤 의사들은 전례대로 한다면 침상에서 절제 안정을 하도록 지시를 받을 정도의 중증환자도 의자에서 안정하도록 처방을 내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자세도 바르게 되도록 지지해주고 의자에서 체위를 변경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때는 간호원이 환자의 체위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자의 체위결 변경시킬 때에 자기를 돕도록 가르칠 필요도 있으며 또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 운동신경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환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간호원들은 또한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진 기계적장치의 사용이나 홀이들을 사용하여 환자를 들러 높이거나 쳐드는 방법에도 익숙해 있어야 한다. 모든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간호원들은 환자운반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지방의 자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와 같이 여행하기 위해서나 또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똑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기을이는 것도 간호원의 책임이다. 건강한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도 빈번하게 움직

이며 일어나 있는 기간 거의 정지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혹은 마취되어 있는 환자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시간마다 간호원이 그 체위를 변경하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누워 있기만 하는 환자의 요창을 예방하기 위해 빈번하게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여 주고, 또한 환자의 몸을 청결히 하여주는 일은 환자에게 부여되는 간호의 質을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자에 앉든가, 하루에 몇걸음씩이라도 보행을 하든가, 혹은 기타의 모양으로 누워 있기만 하는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극히 소수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환자들이나 신체장애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간호원이면 體位交換을 할 수 있는 침상이나 Stryker, Foster frame 침대 기타의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요창이 일어나기 쉬운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돕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身體機轉에 관한 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물리치료사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간호원의 책임은 꽤 가벼워진다. 그러한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간호원은 환자가 계속하도록 간호원이 도울 수 있는 어떤 계획표를 만들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57 page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비행기가 한국국민들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어졌던 것입니다.

첫째로, 비행기는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그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비행기는 의사들의 여행을 보다 신속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한국의

여러 벽지와 도서지방에 조직적인 진료소들을 개설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 도움도 아울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륙 양용 비행기가 육체적, 영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비행기를 헌납합니다.